

하반기 예정된 오디션 예능프로도 직격탄

‘쇼미더머니9’ 체육관 예선 불가
‘트로트의 민족’ 예선 일정 스톱
‘트롯신...’ ‘캡틴’ 등도 전진공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가을 방송을 앞둔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도 ‘초비상’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대면 오디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0월과 11월 잇달아 방송을 예정한 각 프로그램은 초반부터 제작에 차질을 빚으며 대대적인 편성 변동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각 방송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중단 등 조치를 실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 ‘쇼미더머니9’ 등 “참가자 안전 최우선”

엠넷 ‘쇼미더머니9’은 9월 중 열기로 한 1차 예선을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가을 방영을 목표로 21일 지원자 모집을 마감했다. 각 시즌마다 1차 예선에는 무려 2000여명이 체육관 등 한 데 모여 심사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시즌의 ‘스타’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규모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엠넷 관계자는 24일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방송에 앞서 최근 1차 예선을 치르기 시작한 MBC ‘트로트의 민족’은 당분간 오디션 일정을 잡지 않을 방침이



다. 전국 각지 트로트 실력자들의 대결을 담는 프로그램은 20일까지 지원을 받았다. 9월9일부터 오디션 포맷으로 바뀌는 SBS ‘트롯신이 떴다’, 10대 참가자가 출연하는 10월 엠넷 ‘캡틴’ 제작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 ‘방역지침 따라 있던 제작 취소’

한 오디션 프로그램 관계자는 “포맷 특성상 다른 예능프로그램보다 녹화 참

여 인원이 더 많다”며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집합과 모임을 금지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따르는 데 무리가 있는 만큼 당분간 일정을 재개하기는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BS·tvN 등 각 방송사들이 연일 감염병 방역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 방송사가 드라마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SBS도

24일 ‘집사부일체’ ‘런닝맨’ 등 예능프로그램의 촬영을 취소했다. 또 26일과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었던 OCN ‘미생: 그들이 있었다’와 tvN ‘청춘기록’의 제작발표회도 이날 취소됐다. 특히 ‘청춘기록’은 연기자 박보검이 31일 해군 입대하기 전 마지막 공식 행사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큰 아쉬움을 남겼다.

유지희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이효리 ‘마오’ 발언에 중국 누리꾼 발끈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중국 마오쩌둥 주석을 비하했다는 오해를 받고 현지 누리꾼들의 여론 못매를 맞았다. 이효리는 22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프로젝트 걸그룹 환불원 정대와 관련해 자신의 새로운 ‘부캐’(부캐릭터)를 말하다 “마오는 어때냐”고 말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비하했다며 이효리의 SNS 등에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이에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24일 “활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마오’와 관련해 우려처럼 특정 인물을 뜻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더 이상 오해를 막기 위해 유료 서비스에서는 해당 내용을 편집했다”고 밝혔다.

BTS 지민, 전남지역에도 장학기금 1억



지민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박지민)이 전남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민을 대신해 아버지 박현수씨가 교육청을 찾아 장학금 전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전남의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부산 출신인 지민은 그동안 자신의 부산예고 등 모교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한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들은 이날 수해 복구를 위해 NGO 단체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 8억 9000만원을 맡겼다.

新 한류시장 MENA가 뜬다

(Middle East·North Africa)

‘기생충’ 아랍어로 UAE서 공개
‘사이코...’ 중동·이집트서 인기
케이팝 스타들 팬덤도 두터워

‘MENA’(메나)가 뜬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North Africa) 지역인 ‘메나’가 한류의 새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케이팝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 등 케이(K) 콘텐츠의 현지 인기로 좁게는 아시아권, 넓게는 미주 및 유럽 일부 지역으로 뻗어나간 한류가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작으로는 처음으로 아랍권의 대표 유료 채널인 UAE(아랍에미리트)의 OSN을 통해 아랍어 더빙판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자막본을 통해 모은 현지 인기에 힘입었다. ‘기생충’은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24일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기생충’은 ‘아랍에미리트 더 내셔널’ 등 현지 언론으로부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이슬람권 최대 명절 ‘이드 알 아드하’ 연휴에 ‘불 만한 8대 영화’에 선정됐다.

‘케이(K) 드라마’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 김수현 주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현지에서 공개됐다. 24일 현재 사우디·카타르·이집트 등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만희가 나선 드라마 ‘더 킹:영원한 군주’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케이팝의 팬덤도 두터웠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걸그룹 블랙핑크·트와이스, 그룹 아이린 등이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아랍권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안가미(Anghami)’의 차트에서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중동 국가에서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영화 ‘기생충’(사진 위)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일본과 중국, 미주 지역을 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작품들이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tvN

등 케이팝 음원이 상위에 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양가미에서 주로 소비되는 음악이 아랍어 음원임에도 케이팝이 주요 차트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 세계 시장 규모의 3.7%(4억 6100백만 달러·5468억원) 규모의 현지 음악 스트리밍 시장 매출이 한국(3억6200만 달러·4303억원)보다 높고, 2024년 1.5배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케이팝의 확대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현지의 ‘집콕’ 한류 콘텐츠 이용량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양가미 앱 사용량이 늘었다”면서 “모바일에서 TV와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30%와 20%씩 증가했다”고 전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기는 탁월” vs “난해한 이야기”

4회 방송 ‘비밀의 숲’ 엇갈린 반응

대립의 상징인 조승우·배두나
새얼굴 최무성·전혜진엔 호평
수사권 조정 문제 몰입에 방해

“선불리 판단하기 이르다” VS “난해하다”.

조승우와 배두나 주연 tvN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 2’가 총 16부작 가운데 초반 4회분 방송을 마치고 시청자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전 1편의 성공에 따른 기대감과 작품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5일 방송을 시작한 ‘비밀의 숲 2’가 첫회 시청률 7.6%(닐슨코리아)로 출발해 16일 6.4%, 22일 7.0%, 23일 6.4%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에선 기대를 밑도는 성적이라고 지적하지만, 방송 직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거나 16부 중영 이후 한 번에 몰아보겠다는 ‘정주행 대기 팬’도 형성된 만큼 초반 시청률로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시선이 나온다.

오히려 열혈 시청자 중심의 ‘비수 팬덤’이 각양각색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의문의 살인사건을 추적하며 검찰 개혁 메시지를 강조한 1편과 달리 첨예한 현실 이슈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2편은 ‘난해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초반 4회분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의 배경 설명으로 대부분 내용을 채웠다. 심장을 조이는 추리극이 1편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2편은 주제부터 명확히 알려려는 전개로 오히려 폭넓은 시청자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사전제작으로 16부작을 완성한 제작진



‘비밀의 숲2’ 전혜진

은 이를 예측한 듯 “1편과 비교해 2편은 안개까지 끼쳐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예고했다. 연출자 박현석 PD는 방송 전 제작 발표회에서 “뭔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파껍질 같은 사건들을 황시목 검사(조승우)와 한여진 형사(배두나)가 헤쳐 나가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한다”며 “원칙, 정의, 선한 의지라는 ‘비밀의 숲’ 기조도 지킨다”고 밝혔다.

절대적 호평도 있다. 1편의 주역 조승우와 배두나의 탁월한 캐릭터 표현은 물론 검경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합류한 최무성과 전혜진의 활약 덕분이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대중의 기대를 충족해온 이들은 속내를 파악할 수 없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 긴장을 높인다.

1편에 이어 다시 2편에 등장하는 윤세아의 맹활약도 돋보인다. 남편의 죽음과 부친의 몰락으로 재벌그룹 회장에 등극한 그는 자본 권력을 앞세워 음모를 꾀하는 혼란 캐릭터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룬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김혜영, KBS FM서 다시 마이크 잡는다

방송인 김혜영이 다시 마이크 앞에 앉는다. 강석과 함께 1987년부터 33년 동안 진행한 국내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링클럽’에서 하차한 그가 31일부터 KBS 해피 FM(106.1MHz·2라디오) 편성 개편에 따라 ‘김혜영과 함께’를 새로 진행한다. 매일 오후 2시부터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혜영은 처음으로 단독 진행자로 나선다. 트로트가수 주현미도 4년 만에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매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하며 마이크 앞에 돌아온다.

방송인 장성규, 사후 장기 기증 약속

방송인 장성규가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다. 장성규는 24일 SNS를 통해 자신의 사후 각막과 뇌사시 장기 기증, 인체조직 기부 내용을 담은 등록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SNS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면서 “현실을 살다 보니 나 혼자 잘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 그래도 제 인생 마지막에는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진 것들, 마지막에 다 드릴게요. 살아있을 때 못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성규는 현재 KBS 2TV ‘퀴즈 위의 아이들’, JTBC ‘방구석 1열’ 등에 출연 중이다.

정지영 감독, 보조금 횡령 고발 당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 씨에게 고발당했다. 이에 정 감독의 아들이자 제작사 아우라픽처스 정상민 대표는 24일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굿모아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한현근 작가를 대리해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황명·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 감독 등은 2011년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서 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 처우 개선 지원금을 스태프 통장에 입금했다. 프로듀서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2012년 ‘남영동 1985’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스태프 급여를 제작사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양 변호사는 주장했다.